



미지근한 외국인

1.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

- 2021년 기관투자자는 36조원, 외국인은 18조원의 국내주식 순매도. 반면 개인투자자는 58조원의 국내주식 순매수.
- 작년 4분기 이후 글로벌 연기금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줌

2. 신흥국 주식관련 펀드는 순매수

- 작년 4분기 이후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음
- 4월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흥국 주식관련 펀드 플로우는 변동성이 커졌음

3. 글로벌 연기금은 국내주식 순매도

- 연초 이후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국가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쿠웨이트, 사우디 등
- 대형 연기금이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은 우리나라 주식 매도 기조 이어감
- 수개월째 글로벌 연기금의 주식 자산 비중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도 부담은 줄어듦
- 인플레이션 우려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1.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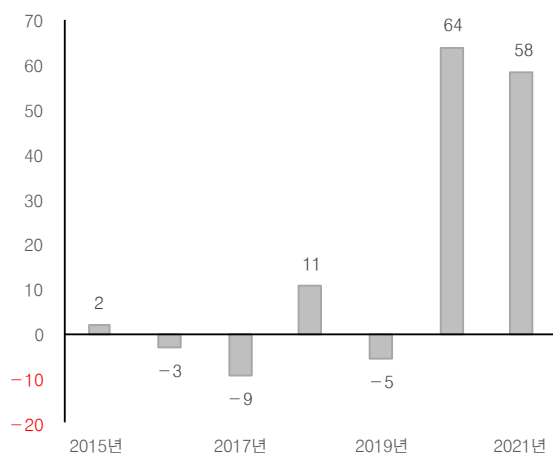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는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크게 늘렸다. 올해도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시장에서 58조원을 순매수하면서 국내주식시장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1월에만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을 25.9조원을 순매수하기도 하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2020년과 2021년에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 2021년 기관투자자는 36조원, 외국인은 18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기관투자자는 국내주식시장 상승을 이어가면서, 목표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겨났다.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배분 비중을 지키기 위하여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작년보다 커졌다.

외국인은 작년 3월 12.8조원을 순매도하면서,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주식을 26.5조원을 팔았다. 하반기에는 순매도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4분기 이후 해외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순매도가 다시 이어졌다. 연초 이후로는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8조원에 이른다.

[차트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 매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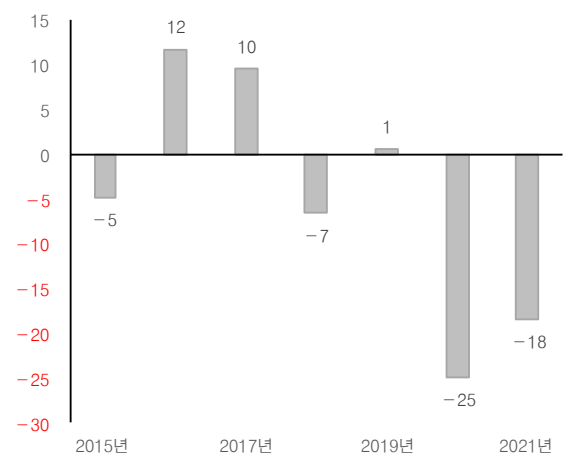
(조원)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5월 20일 기준

[차트2]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조원)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5월 20일 기준

2.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는 순매수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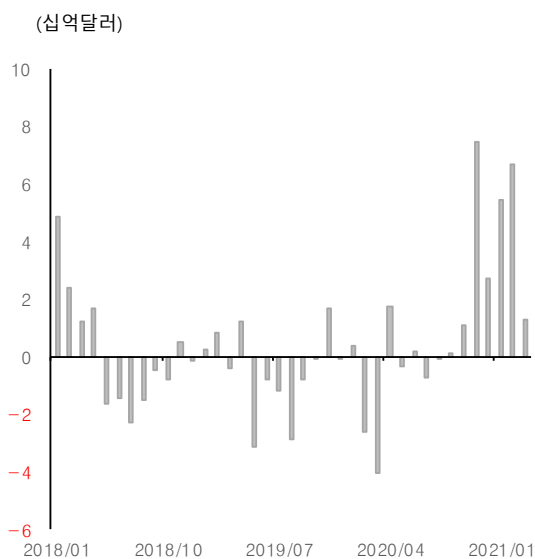
외국인은 연기금, 펀드, 헤지펀드, 국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 다양한 투자주체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장기투자 성격이 짙은 펀드는 미국이나 룩셈부르크에 영향을 많이 주고, 헤지펀드나 패밀리오피스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에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는 미국계 자금에서 펀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 관련된 글로벌펀드 자금의 흐름과 미국계 자금의 방향은 비슷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관련 펀드에서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미국계 자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기초를 이어갔다.

2020년과 2021년 미국계자금은 각각 16.0조원과 5.3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CalPERS 등 미국의 연기금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주식 자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일부 주식을 이익실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4개월째 순매도를 보였던 미국계자금은 4월 순매수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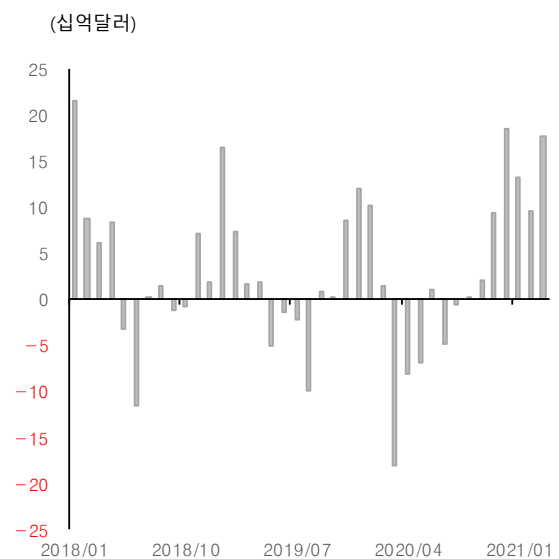
신흥국 관련 주식 펀드는 순매수는 이어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차트3]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6개월 연속 순매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3월 기준

[차트4]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순매수 규모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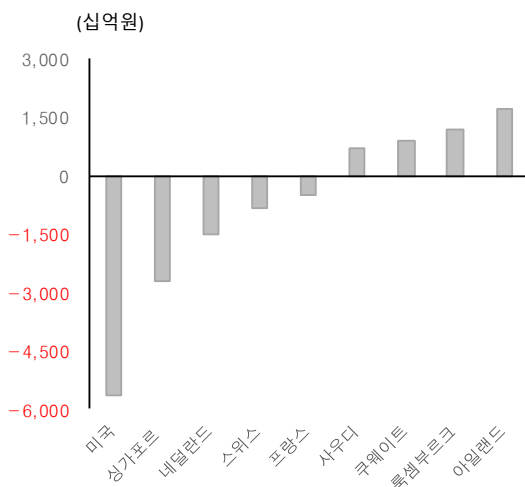
3. 글로벌 연기금은 국내주식 순매도, 국부펀드와 헤지펀드는 순매수

연초 이후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국가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쿠웨이트, 사우디 등이다. 아일랜드의 룩셈부르크는 헤지펀드와 패밀리오피스가 많이 설정되어 있고, 쿠웨이트와 사우디는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크다. 중동의 국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은 상대적으로 자산배분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연초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는 국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네덜란드(ABP), 일본(GPIF), 노르웨이(노르웨이 국부펀드), 프랑스(FRR)는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정한 자산배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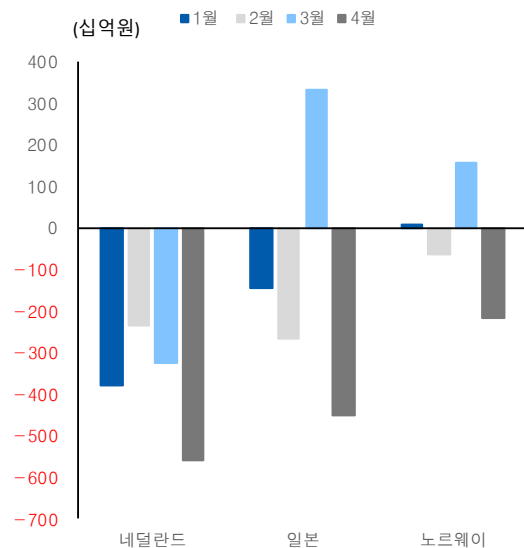
글로벌 연기금의 주식 자산 비중 축소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글로벌 연기금의 주식 자산 매도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은 신흥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외국인 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 미지근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5] 2021년 외국인 중에서 국내주식을 순매수한 국가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쿠웨이트, 사우디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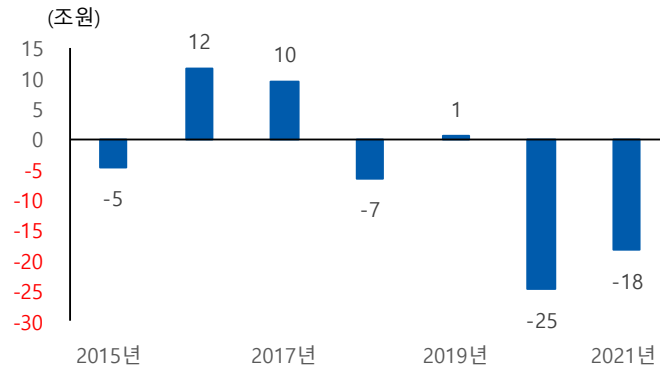
[차트6] 외국인 중 연기금 비중이 큰 국가는 순매도 이어감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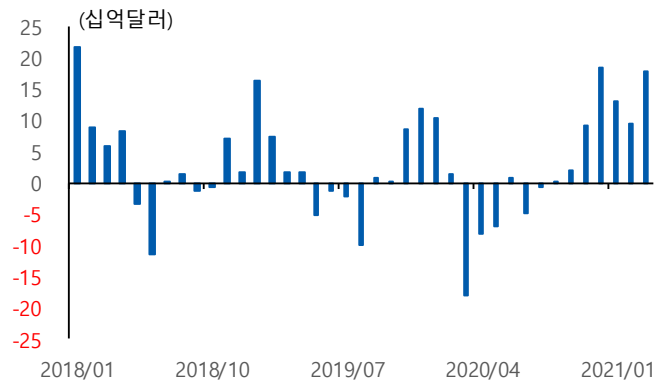
Key Chart

외국인의 국내주식 연도별 순매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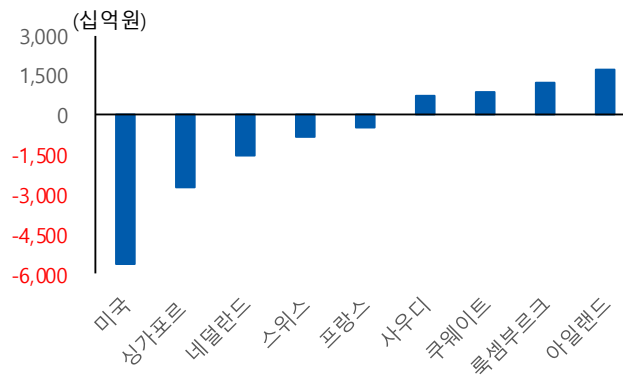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용국 주식펀드와 ETF, 순유입 이어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외국인의 국가별 순매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